

투데이 칼럼

조문(弔問) 스피치

효 과적이고 품위 있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3P와 T.P.O에 맞게 해야 한다. 3P는 사람(people), 목적(purpose), 장소(Place)다. 우선 이를 잘 분석해야 한다. T.P.O는 시간(TIME), 장소(Place), O(occasion)로 이 상황에 맞게 스피치를 해야 한다.

정중하고 조심스런 조문(弔問) 스피치를 알아보자. 견배사나 대화중에 자주 등장하는 99, 88, 2, 3, 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를 잃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는(死)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다.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당신의 생명을 설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죽음과 부활의 기로에서 있음을 안다면, 한층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라는 긍정적인 타이틀의 말도 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나 두렵고 말 자체도 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고 어쩔지 우물쭈물한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인생이 겪어야 하는 한 과정이다.

'조문'의 정의를 살펴보자. 영정 앞에 절하는 것은 '조상'이며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은 '문상'이라고 한다. '조문'이란 조상과 문상을 다 함께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조문'이고 '조문간다'가 옳은 말이다.

'조문'에도 스피치 요령이 있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첫째 '상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하고 간단하게 하자.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보통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뒤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으로 말하면 된다. 이때 상주는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둘째, 상주를 분석하여 화법을 맞추고 되도록 쉽고, 또박또박 말을 한다. '망극지통(罔極之痛)'했다가 상주가 당황할 수도 있다. 망극이란 말은 부모상에만 쓰는 말이다. 고분지통(卹盆之痛)했다가도 상주가 당황할 수 있다. '고분지통'이란 당사자 아내 상에 쓰는 말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壯者)의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다. 상주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고, 내용도 상대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상주를 위로한다고 자기의 주장을 자주 말하지 마라. 위로한다

고 '호상이시네', '천수(天壽)를 다 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등의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되도록 조문객끼리 귀엣말로 주고받는 것이 좋다. 망인이 '연민(年晩)하여 돌아 가셨을 때 호상(好喪)이라 하여 떠돌고 웃고 하는데 이는 삼가는 것이 예의이다.

넷째, 위로의 말을 하면서 상주에게 악수를 얹는 것이 원칙이다. 요사이의 편의상 많이 하고 있다. 상주가 먼저 청하는 경우 거부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통예절에서는 상주가 경황이 없고 피로하기에 부담이 되는 언어는 물론 악수도 피하는 것이 맞다.

다섯째, 조의를 전달 방법을 올바르게 한다. 봉투의 앞 중앙에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訃告), 조의(弔儀) 등을 쓰고 뒤 왼쪽 아래에는 자기 이름을 적는다. 봉투속의 돈은 단자(短紙)에 싸여 예의에 맞는다. 단자에는 오른쪽부터 '부의' 또는 '삼가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쓰고 '금 000원, 그리고 다음 줄에는 년 월 일을 쓴 다음 가장 왼쪽에

자기 이름과 근정(謹啓)이라고 쓴다. 이 때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000원정'이라고 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조물이 돈이 아닌 경우 '광목 몇 필', '쌀 몇kg' 등으로 기재한다.

여섯째, 조문을 갔을 때 자기의 풍습이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주는 것이 좋다. 자기의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영정만 행동을 한다면 상주에게 부담을 준다.

일곱째, 상주와 인사말을 나눌 때는 빈소 곡재배(哭再拜)가 끝난 후 상주에게 절하고 꿇어 앉아 정중한 말투로 한다. 슬픔과 아쉬운 감정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표현해야 상주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여덟째, 조문을 끝내고 뒤돌아 올 때는 상주와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온다. 상주는 조문객을 계속 받아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므로 일부러 만나서 다시 인사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는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또는 알고 있는데도 조문을 오지 않거나 조장(弔狀), 조전(弔電)조차 보내지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었다.

현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격 있고 예의바른 스피치가 절실하다. 조문 스피치와 같은 생활 스피치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인격 있는 사람, 예의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예절이 필수다.

사설

창업 정신 독려하려면 지원 병행해야

창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창조 경제를 외치고 있는데 반응이 없이 공허한 울림만 반복되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전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보고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천127건이 세도했는데 여저된 일인지 전북지역은 지원이 겨우 15건에 불과, 전국 꼴찌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도내 벤처기업들의 현주소가 다시 궁금한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적지 않아서 말이다. 전북도는 도내 1인기업을 포함해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현주소에 대한 답변이 명쾌해야겠다. 만약 그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다면 전북도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벤처기업 육성을 말해왔던 것과 결과가 판판이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1인 벤처기업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 접수 성적이 저조

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매년 좋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그게 전북도의 관점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원 신청자의 입장에서 좋은 조건의 지원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나 지원금은 도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현실 파악이 정확해야 한다. 전북도는 중소기업들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낙관적인 보고를 말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안정 성과도 상당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전북도는 젊은이들의 창업 정신을 고무하려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도내 벤처 기업의 상당수는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에서 출발했다. 지난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벤처기업인 양산과 맞물려 돌아왔던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만약 고전하는 벤처기업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제 역할을 다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답답한 현실뿐이랴해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창업 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

비정규직 종사자 전체 40% 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고용이 마음을 쓰고 있다지만 말뿐이지 않다. 오히려 상황이 예전보다 못하니 말이다. 정규직이 늘기는 고사하고 비정규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 말이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 취업자들도 바라는 비는 취직과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그 취직과 고용안정이 매번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지적 대상이 되고 있으니 문제이다. 정말이지 취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직종의 창출이 필요하다.

도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종사자가 4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고용 현실이 이런데도 낙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공은 일자리 구하게 목마른 젊은이들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고용환경이 더 힘들어졌다는 호소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잘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병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도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환경이 전국에서 매년 꼴찌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중에 비정규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만 늘고 있음은 큰 문제이다. 취업 현실이 고용 현실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이라면 전북도는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보여줘야 한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진실로 고민하라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교통 법규 위반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2천 백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인구 248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이다. 물론 선진국(미국 2명, 일본 1.6명, 독일 영국 등 1.7명당 자동차 1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내에 좁은 국토에서 증가한 자동차 수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숙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 매너,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한 질서가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교통 사망사고 등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법규위반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이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 금지"(신호도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도변경위반, 급제동금지위반) 항목을 신설 이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입건을 하고 있다. 이법 시행 전에는 도로교통법 범죄금 4만원(승용기준)에 벌점 10점이 고작이었으나, 이법 시행 후엔 '형사입건'(경찰 수사자료에 기록됨)이 되는 것이다.

장기육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장 경감

사위고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허위·장난 신고는 골든타임 확보 저해

경찰은 112총력대응, 선응답제도 등 국민안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112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할 수 있는 민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가 허위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현재 허위 신고자는 60만인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112 허위신고로 지역경찰이 헛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112허위신고가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고, 형사 처벌을 물론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수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허위신고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엄연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더 이상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명의 전화인 국민들의 비상벨 112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김재수 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